

한국이 낳은 해방자 권양

안 병무

“진정으로 법을 위반한 자는 누구인데 왜 내가 여기 서야 하는가. 문귀동과 이 정권의 책임자가 여기 서야지.”

1979년 박정희 피살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여고 2년생으로서 동급생들과 함께 목을 놓아 통곡했다는 권양!

명색이 형사라는 자에 의해 옷을 벗기우고 뒷수갑이 채워지고 시멘트바닥에 무릎 꿇리우고 마침내는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야수적인 만행을 당하면서도 비명 밖에 지를 수 없었던 너.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유치장에서 열흘을 보내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속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못이루던 너. 결국 아무런 무기도 못가진, 너무도 힘없는 자신을 자학하여 몇차례나 자살을 꾀했던 너. 모든 평범한 자들과 꼭 같은 힘없는 하나의 여인인 네가 어찌면 그렇게 당당하게 관권, 아니 국민을 향해 도도하게 섰느냐? 너는 이미 하나의 여대생이 아니라 이제 이래 계속되는 한국의 권력구조에 몸으로 도전하여 역사를 역전시켜가고 있는 큰 존재이다. 우리는 여자로서 고작 눈개를 말하고 유관순을 말해왔다마는 이제부터 역사는 반드시 너의 이야기를 땀 수 없으리라. 네가 있어 한국의 여성이 있고, 젊음이 있고 한국에도 진실이 이기는 때가 온다는 희망이 용솟음치게 한다. 조그마한 존재인 너, 그것도 철창에 갇혀 있는 너의 사건이 순식간에

인천감옥 70여명의 양심수의 마음에 불을 질러 단식을 하게 하더니 삼시간에 감옥의 담장을 넘고 은폐하려는 온갖 장벽을 깨고 침묵을 강제당한 관제언론의 저지선을 뚫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더니 그것이 마침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양심있는 법조인들을 유례없는 절대다수로 동원시켜 역사의 증인이며 투사가 되어 너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줌으로 너와 네게 일어난 사건은 큰 파도와 같은 실체가 되어 모든 한국의 젊은 처녀들에게, 모든 한국의 딸을 가진 어머니들에게, 아니 어디 그뿐이라, 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밀어 닥치더니 이제는 국경을 넘어 온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다.

너는 이제 우리안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서구에서 물려온 개인주의가 만연하여 날로 냉담해지고, 길고 긴 겨울이 계속됨으로 얼고 언 마음들이 너를 중심으로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라는 연대의식을 소생시키고 있다. 네가 당한 모욕은 네 홀로의 일이 아니라 한국여성 전체가 당한 일이다. 문귀동이란 자 하나만의 짓이 아니라 남자라는 남자는 모두 공범자라는 자책이 파고든다. 보라 네 증언대로 부친경찰서가 다 동원되어 자기 방어에 여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검찰이 조사한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고, 법정의 판결이 네 사건을 끝내 묵살하고, 남자위주로 된 국가가 끝끝내 그 진실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왜?! 결국 그들이 모두 공범자라는 자책때문이지. 자기들의 일이 세상에 폭로되는 것이 무서워서이지. 이미 너를 정죄한 자들이 정죄를 받고 자신들의 아내 그리고 딸들을 쳐다볼 수 없어 관직에 묶여있는 양심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가 네 편이 되기까지 네 정신은 퍼져나갈 것이다. 이미 한 공직자는 “나는 이 이상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의 고통 때문에 피로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나약한 미혼여성의 몸으로 엄청난 조직적 폭력을 구사하는 정치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온 몸으로 증거해 인권회복의 빛나는 지평을 연 권양의 고통과 용기에 동참하면서 백만공무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앞에 이 양심선언을 한다”는 선언과 더불어 관직에서 쫓겨났다. 아니! 차버리고 나왔다고 해야 옳다. 그것 뿐이 아니다. 너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내버려둔 기성세대를 모두 피고석에 앉히고 너는 재판장석에 앉아 “너희들은 일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압력이나 회유에 쉽게 굴복하여 자신만 살고자 하고 이러한 인권유린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희생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투쟁의지가 생길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같은 천인공노할 사태가 거리낌없이 만연되어 왔다”고 일갈을 하고 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너를 통하여 한없이 많은 교훈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그것을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해 본다.

첫째는 변호인단의 항변에서 “진실은 감옥 속에 가둬 둘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고백과 같은 신념이 토로되었듯이 우리는 너와 더불어 「진실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싸울 때 비로소 불의가 설 자리가 없음을 배우고 있다. 7월 7일 그러니까 벌써 한해를 넘긴 1986년 그날, 열흘 동안 단식한 너는 “이 분노를 그대로 삭힐 수가 없다. 마룻장을 베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라고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듣고 이것이 바로 국민운동의 바탕을 이루는 첫 지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웅이 될 수도 없고 투사가 될 수도 없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쩌다 한 세기에 한 두번씩 나는 용감한 사람들을 사표로 온 국민을 계도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열등의식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일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양심운동의 기초는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진실에 대한 결연한 표명이다. 우리는 긴 역사를 통해서 부패한 정권들에게 고문에 의하여 이실직고라는 미명하에 거짓 증인이 되어야 하는 억울함을 계속 당해왔다.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죽어갔는가? 그럼으로 진실은 언제나 은폐되고 거짓을 증언한 억울한 혼백들이 이 땅에 떠돌고 있다는 환상에까지 이르면 전율을 느끼게 된다. 진실이 거부되는 곳에 정의가 무엇이며 건설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불신풍조는 바로 폭력에 의해서 짓밟힌 진실이 둔갑된 결과이다. 우리는 폭력이 무서워서 진실을 짓밟기도 했고 자신의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진실을 함부로 쉽게 팔아 버리기도 했다. 그 결과로 남자가 애를 낳게 하는 재간만 빼고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폭력정치에 이 나라 전체를 내맡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었다. 우리는 너처럼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진실을 밝힐 힘을 모든 국민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와 더불어 「옳다」와 「아니다」를 분명히 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남자위주의 낡은 도덕관념에서의 해방운동이다. 「정조」! 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남성들이 여성의 목을 매어 꼼짝 못하게

하는 쇠사슬이며 다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정조는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왔고 남성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리라는 이름 밑에 아름답고 고상한 말로 세뇌시켜 강요되어 온 것이다. 서구에는 정조대라는 것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보다 더 무섭게 다져진 관념이 되어 여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인식시켜 왔다. 바로 이것을 파렴치한 남성들이 여성을 종속시키는 무기로 삼아 왔다. 더구나 한 나라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경찰이 바로 이 관념을 방패로 알고 야수가 되기를 꺼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정조관념이 그의 만행을 감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까닭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정조를 생명보다 중히 여겨서 욕을 당한 사실을 은폐하기 때문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엄존하는 남성위주의 사회가 동기야 어찌 되었던 정조관념 자체에 저촉된 여성을 용납하지 않는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여성의 해방은 정조관념의 해방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조관념에 대한 철저한 재규명이 필요하다. 정조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계약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기존의 정조관념 그 자체는 남성들이 만든 유령이다. 동반자가 된 남성은 이 정조관념에 매이지 않고 여성만이 매이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동반자와 계약한 것은 함께 지킬 때에만 성립된다. 그런데 폭력에 의해서 빼앗긴 정조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되겠는가? 그것은 글자 그대로 성고문이지 정조가 유린된 것은 아니다. 권양은 육체적으로 고문을 당했을 뿐이다. 그 마당에 육체의 어느 부분에 당한 고문인가 하는 구별은 아무 차이도 의미도 없다. 그러나 문귀동과 같은 악당들은 여성들에게 잠재해 있는 그릇된 정조관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범죄사회일수록 통용되며 만연되고 있다. 권양! 너같이 명석한 대학생도 인권유린이란 차원을 넘어서 낡은 정조관념에서 고민하여 몇번씩 자살까지 하려 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너는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이 낡아 빠진 허위를 꿰뚫어 보고 인간으로서 도도히 악당들과 대결하게 되었고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악당들의 야수성에 희생되는 많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너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면서 남성세계에 도전하고 나섰다.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쓰면서 갈갈이 찢겨지고 능멸당한 성고문을 썬내려 가면서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조금씩 조금씩 썬내려 갈

때 나는 몸부림을 쳤읍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하고 나섰던 일에 대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알려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지장이 온다 해도 가슴 속에 숨기면서 남자를 증오하고 무조건 피해의식에 젖어 비이성적 감정에 빠져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사는 것보다 이 일을 세상에 폭로하여 진리를 물리적 힘으로 은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너의 진술에서 나는 바로 위에서 서술한 것같은 네 고통을 읽고 너와 같은 대열에 서서 여성을 성의 그릇된 관념에서 해방시키는 운동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다짐한다. 권양! 너는 지금 많은 국민들 앞에 가장 순결한 천사로 부각되고 있다.

끝으로 너는 이기주의에 메말라 가는 이 땅위에 희생이 없이는 해방이 없다는 진실을 몸으로 절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너를 가리켜 “이 시대의 모든 죄악과 타락과 불의를 속죄하는 제물로서 역사의 제단 앞에 스스로를 바쳤다”고 증언한다. 성서에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라는 구절이 있다. 너는 바로 이 권고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너와 같은 처지에서 희생되었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네 자신을 바쳤고 이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를 수많은 한국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몸을 제물로 바쳤다. 아직도 이 사회가 「정조」를 생명보다 중하다고 떠들고 네가 당한 일을 수치라고 보는 현실을 알면서도 너는 죽음을 딛고 일어서는 결단으로 그 「수치스러운」 몸을 법정에까지 드러내서 천하에 알리고 보이기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이상 고귀한 제물이 어디 있으랴. 부패한 한국사회는 너로 인해서 정화될 것이며 정조를 미끼로 끌려 다니던 한국의 여성들이 네 희생으로 해방의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네 뒤를 따라서.

나는 너를 본 일도 없다. 그러나 너를 내 며느리로 삼을 아들이 없는 것을 진심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기록들은 한국 역사의 금자탑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